

“충남지역 핵심전략산업의 인력수급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백남훈) 와 충남자동차 인력양성 사업단(단장 이금배)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자동차산업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 핵심전략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과제'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충남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룩해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함석동 국가균형발전위 지역혁신국 과장의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강연을 가진데 이어 ▲ "충남지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과제" (이금배 충남자동차 인력양성사업단장) ▲ "충남지역 전자, 정보기기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과제" (설용태 디스플레이 중견 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 "충남지역 첨단 문화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과제" (송복희 캐릭터 제조 산업 육성 및 지역인력양성사업단장) ▲ "충남지역 농,

축산 바이오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과제(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금배단장(충남자동차 인력양성사업단)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자동차, 부품산업분야 인력양성의 개선방향으로 ▲ 특성화 교육실시 ▲ 미래형 기술인력 양성 ▲ 산학연관 교류 활성화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또 설용태단장(디스플레이 중견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충남지역 전자, 정보기기산업의 인력수급현황 개선방향으로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활성화 ▲ 교육기관의 교육시스템의 변화 ▲ 산업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력양성 참여 등을 들었다.

송복희단장(캐릭터 제조 산업 육성 및 지역인력양성사업단)은 캐릭터 제조산업 활성화방안으로 ▲ 캐릭터 제조산업 단지 조성 ▲ 캐릭터 제조 신기술 및 신소재 지원 ▲ 캐릭터 상품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권희태과장(충남도청 혁신분권담당관), 황장순과장(충남도청 과학산업과), 장진식 본부장(자동차부품연구원), 이석희박사(대구 경북RHRD지원센터장), 한무호박사(충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등이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충남인적지원센터 백남훈센터장은 "충남지역 핵심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력수급개발 전략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며,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들을 모아 충남도의 전략산업 인력수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의미를 두었다.